

[주간동향] 2006. 5. 31 ~ 6. 7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노동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모성보호와 고용안정 제공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 ❖ 5.31 선거, 여성 풀뿌리 진출 4배 증가
- ❖ 행정자치부,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다문화 국가
- ❖ 코스닥 여성 CEO 주식부호 10인
- ❖ 월드컵 열기와 함께하는 '육아데이'

❖ 노동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모성보호와 고용안정 제공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파견직)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40~60만원,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출산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상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도 해고의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근로자 중 특히 비정규직일 경우 출산으로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주 역시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이들의 고용이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제도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고 정규직고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산전후 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부담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 고용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6개월 경과 후 일괄하여 관할 고용 안정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올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위험행태, 영양상태, 만성질환 유병 등에 관한 전국 규모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수준은 향상된 반면 노인 인구집단은 다소 나빠졌고, 여성 흡연율은 증가 추세, 음주율은 남녀모두 증가 추세이다. 1인당 1일 에너지 섭취량은 증가하였으며, 생후 6개월 시점의 모유 수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중 여성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질병과 사고로 인한 연간 침상와병일수는 남성 5.1일에 비해 여성 7.4일로 2.3일 더 길었으며, 여성의 14.8%가 치료지연 혹은 미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흡연율은 2001년 이래로 계속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성 흡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2005년 현재 지난 1달간 1잔 이상 술은 마신 사람의 비율은 남자 76.4%, 여자 41.1%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고위험 음주(알코올 40g 이상)군은 8.2%였으며, 20대부터 40대까지 높다가 50대부터 점차 감소하였다. 유방암 검진율은 1998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30대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한 비율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고(남자 9.4%, 여자 13.5%),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비율은 20-49세 남자와 7-12세 여자 어린이에서 비교적 높았다. 4세 미만 영아기 수유형태 조사결과, 생후 6개월 시점에서 모유만 수유받은 경우는 전체의 37.4%로 2001년의 9.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남자 35.2%, 여자 28.3%였으며, 연령별로는 남자는 40-50대에서 여자는 50-6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가 더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고지혈증, 당뇨 유병률 역시 남자가 더 높았다. 반면 빈혈유병률은 여자가 더 높았으나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 5.31 선거, 여성 풀뿌리 진출 4배 증가

5·31 지방선거 결과 총 528명의 여성이 당선되었다. 기대를 모았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한 명의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지만,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2명, 기초의원 110명, 광역비례의원 57명, 기초비례의원 326명 등으로 2002년 선거 때보다 386명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당선율 역시 지난 2002년 3.22%보다 4배 이상 높은 13.65%를 기록했다. 그러나 비례의원을 제외하면 여성 당선율은 2002년 당

선을 2.14%의 2배에 그친 4.25%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여성 당선율 증가는 이번 선거부터 기초비례의원을 새로 선출했고, 비례후보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광역비례 64.4%, 기초비례 73.2% 등 다수를 차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한 김은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간사는 “지난 4년 동안 각 정당에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여성 후보를 10% 이상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주요 4당의 전체 여성 공천비율은 겨우 6.4%에 그쳤다”며 “특히 한나라당이 52개 지역에서 여성에게 배정해야 하는 비례후보 1번을 남성에게 준 사례는 정당이 여성 공천 할당에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만큼 여성 당선자 또한 한나라당 소속이 많았으며, 특히 김영순 송파구청장,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등 여성 구청장 3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이에 대해 김형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부소장은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진행됐다”며 “당선된 여성 후보들은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당 지지도에 기댄 부분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부소장은 또한 “정당 위주의 투표 관행은 여성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성후보의 당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별로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을 우선 공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인수 37,064,282명 중 19,001,370명이 투표에 참여해 2002년 선거 투표율보다 2.4%포인트 높은 51.3%를 기록했다.

❖ 행정자치부,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다문화 국가

지난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1.1%에 해당하는 53만6천627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4월 한달간 전국 시·군·구별로 전수조사한 이번 결과에 따르면, 거주 외국인 중 근로자가 4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제결혼이주자 12.2%, 국제결혼가정자녀가 4.7% 등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중국 국적 외국인 중 조선족이 전체 외국인의 31.7%를 차지했으며 전체 국적취득자의 55%, 국제결혼이민자의 4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남성이 67%였고 국제결혼이주자 중에는 여성이 8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주 외국인 가운데 근로자는 안산시에 가장 많았고 국제결혼이민자의 수는 자녀를 포함해 서울 서대문구에 가장 많았다. 특히 국제결혼이민자의 경우 1천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가 19개나 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외국인 특화마을·거리 조성 등 지역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거주 외국인의 수가 주민등록인구의 1%를 넘어서는 등 다민

족·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외국인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 갈등과 자녀의 정체성 혼란, 학교내 부적응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코스닥 여성 CEO 주식부호 10인

최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서 코스닥 여성 CEO 부자 10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식평가액 기준 최고 부자는 정영희 소프트맥스 대표로 216억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정 대표의 평가액은 139억원에 머물렀으나, 최근 꾸준한 주가 상승으로 여성 CEO 가운데 유일하게 200억원대 평가액을 기록하고 있다. 케너텍의 정복임 대표는 166억원으로 2위, 3~4위는 임영현 대양이앤씨 대표와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로 각각 122억원, 110억원의 평가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유 주식평가액 면에서는 코스닥 남성 CEO들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IT·벤처업계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한 법인의 여성 CEO는 총 11명으로 전체 코스닥 상장법인의 CEO 1,112명(2005년 기준)의 1%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주식평가액에서도 코스닥 부호 1~2위의 2,878억원, 2,558억원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성기업이 매출 2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대부분의 여성인력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몰려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IT여성기업인협회의 한 임원은 “이제는 여성 기업인들이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월드컵 열기와 함께하는 ‘육아데이’

여성가족부는 현재 추진 중인 ‘매월 6일 육아데이 캠페인’에 기업과 단체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의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6월 육아데이는 현충일과 겹쳐 월드컵 열기와 더불어 자녀들과 함께 프로축구를 관람할 수 있는 ‘자녀 무료 입장 이벤트’와 교보문고의 어린이 도서 할인전이 추가되어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육아데이를 기대하였다. 또한 GS홈쇼핑은 6일 오후 3시간 동안 ‘육아데이 특집전’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동관련 보험상품 등 3개 품목이다.

한편 육아데이는 2005년 9월 이후 587개 직장과 314개 보육시설 등 총 90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족친화경영’ 차원에서 기업과 각종 단체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육아데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재계인사 및 기업인들을 꾸준히 만나 협력을 모색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바람직한 여가 활동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스포츠 경기관람, 다양한 공연 관람 등을 지원하는 기업·단체와의 제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